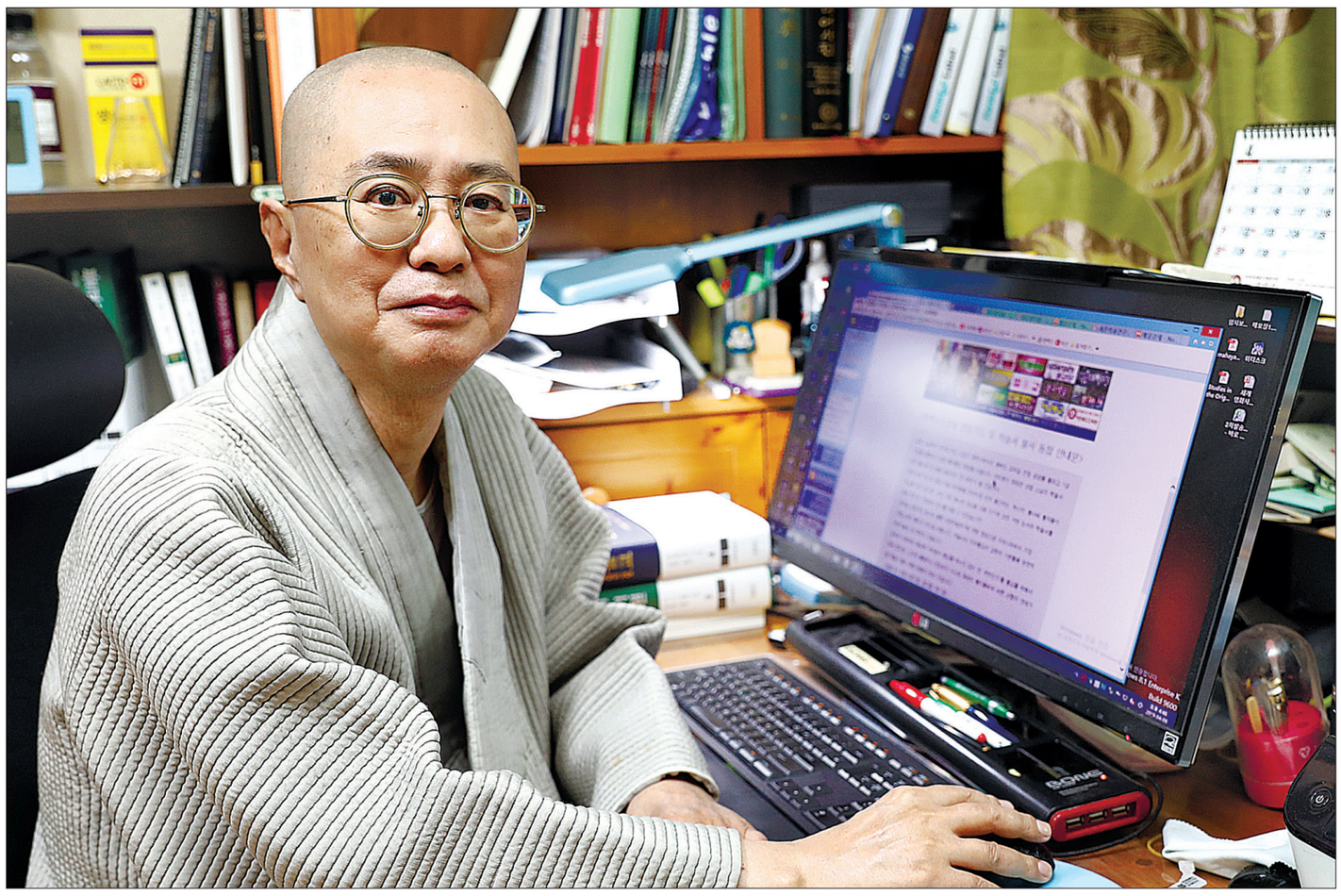


세존 사이트를 모니터에 띄운 세존학술연구원장 성법 스님이 사이트 관리를 하고 있다.

세존학술총서 시리즈

송대 선종사 연구 이시이 슈도 著/ 김호귀 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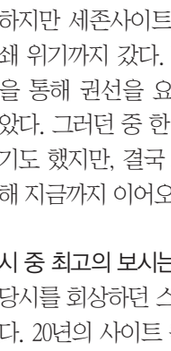
송대(宋代) 선종사를 연구한 책으로 그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조명하지 않았던 송대 조동선(묵조선)에 대한 연구를 담고 있다. 저자는 조동종(묵조선)의 사상과 역사를 비롯해 진헐청료, 굉지정각 등 조동 묵조선의 선승들의 생애와 사상 등을 종합적 ·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아울러 이 책은 묵조선 연구의 일환으로 당시 치열하게 사상과 수행적 투쟁을 벌였던 대혜종고와 간화선에 대해서도 고찰했다.

북종과 초기 선불교의 형성 존 매크래 著/ 김종명 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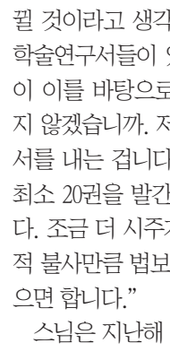
중국 선불교의 중요 종파 중의 하나였던 북종과 그리고 초기 선불교의 형성과 관련된 폭넓은 연구서이다. 신수와 혜능은 결코 같은 때 즉 동시에 오조홍인의 문하에서 공부하거나 있지 않았으며, 전법이 이뤄진 말년에는 둘 다 홍인 문하에 있지 않았다고 했다. "현대의 선불교 연구자들에게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전설과 역사를 분명하게 구별하는 일"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불교의 기원 G.C. 판데 著 / 정준영 譯



저자는 고대 인도에서 불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탐색하려 한다. 그는 붓다의 원음을 찾고자 현재 전승돼 남아 있는 경전 안에서, 그리고 하나의 경전 안에서까지 고층과 신층을 구분하려 노력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니까야 안에서 법수의 형태로 정의되는 교리들에 대해 붓다의 말씀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12연기라는 초기불교의 대표적 교리들이 이에 해당한다.

대승불교 폴 윌리엄스 著/ 조환기 譯



폴 윌리엄스의 〈대승불교〉는 이 분야의 기본 안내서로 널리 여겨질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교육과 연구를 위해 이용되고 있다. 실제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번역됐다. 이 책은 대승불교의 교리적 다양성과 풍부함에 초점을 맞추며, 대승불교의 사상과 이 분야에 대한 최근의 학문적인 성과들도 많이 소개하고 있다. 대승불교 탐구자들에게 중요한 참고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산화 · 학술총서, 바른 불교 알리는 노력들

'성법 스님' B1면에서 계속

수행에 대해서도 스님은 "부처가 아닌 조사를 앞세운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깨달음은 지혜를 얻기 위함인데 선정에 매몰된다고도 했다.

"수많은 선사들의 입에서 판에 박힌 똑같은 언어가 반복되는 것은 자기 소식이 아니라 앞선 중국 선사들의 묵은 소식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보조국사 지눌은 '정혜쌍수'를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한국불교는 '정'만 있지 '혜'가 없습니다. 깨달음은 지혜를 얻기 위한 것인데 선정에 들려고만 합니다. 수행이 이어가기 위해서는 '혜'가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도 정각을 이루고 나아간 곳이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깨친 지혜를 알리고 포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형이상학적이고 신비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인간답게' 사는 방법을 전한 겁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법 스님은 "보조국사 이후 한국불교에 정착한 간화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정 · 혜가 같이 이뤄지고 바라밀 수행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수행의 목적은 중생의 안락과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데 설법에서 '이 도리를 알겠는가'라는 일방적인 전달을 합니다. 논리와 이해보다는 직관을 내세웁니다. 애초 선은 논리를 넘어서는 것이라고만 하죠. 직관은 중요합니다. 수많은 과학법칙과 발명품들은 직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바탕에는 논리와 경험이 있었습니다. 논리를 통해 쌓인 통찰과 직관이 현대 한국불교에는 필요합니다. 논리는 경전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논리는 없고 오직 믿으라고만 하면 현대인들은 외면하게 돼 있습니다. 논리와 직관이 함께 있어야 불교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경전 전산화 선구자

성법 스님은 불교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바른 불교'를 알 수 있게 하는 논의의 장이 많아져야 한다고 봤다. 그런 스님의 지론이 투영된 것이 바로 일명 불교경전총론 사이트 '세존', 일명 '세존사이트'다.

'세존사이트'는 2001년 '화엄경 총론'을 성법 스님이 인터넷을 통해 강의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를 시작으로 법화경총론, 선종론, 금강경총론, 유마경총론, 기신론총론 등으로 확대됐다. 여기에 비교종교, 밀교, 불교 쉽게 알기, 불교미술, 불교와 과학 등 당시에는 획기적인 내용의 연구 자료와 글들이 소개됐다.

현재 세존 사이트는 웹페이지만 15만 쪽을 상회할 정도로 방대하다. 등록된 회원만 3만4000여 명이 넘는다. 각종 게시판을 통해서는 유저 신도들과 스님이 법담과 토론을 나누며 불교를 공부해갔다.

이 모든 것은 스님이 자체 개발한 것으로 모든 자료들의 업데이트도 스님의 자비로 충당했다. 오로지 바른 불교를 논의하기 위한 장을 만들자는 원력으로 한 일이었다.

한국불교 문제점은 무엇인가

부처보다 조사 앞세운 현재 세태

"경전 무시하니 불교가 바로 서"

정체성 모호… 문제 모르는 게 문제

최신 연구서 발간해도 논쟁도 全無

"부처님 말씀 바탕한 수행 · 신행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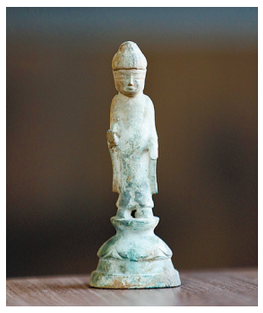
시주가 조금만 더 있다면…

사이트 · 총서, 사재 털어 겨우 진행

"출가자로서 내가 유일하게 할 일"

건강 악화에 수 억여 원 빚만 남아

30년 지닌 신라금동불 보낼 생각도



하지만 세존사이트는 재정난으로 지난 2011년 폐쇄 위기까지 갔다. 당시 스님은 회원들에게 메일을 통해 권선을 요청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그러던 중 한 사찰과의 문제로 잠시 문을 닫기도 했지만, 결국 회원들의 요청으로 다시 재개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보시 중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

당시를 회상하던 스님에게서 많은 회한이 느껴졌다. 20년의 사이트 운영으로 남은 것은 수억 원의 빚과 악화될 때로 악화된 건강뿐이다. 하지만 승가에게서는 실망감을, 재가에게서는 모멸감을 받았던 것이 자신을 더욱 힘들게 했다. 특히 사이트 운영을 위해 권선을 요청하자 "염치가 없다"고 하거나 "스님이 전생에 공덕이 없는 것이 느껴져 보시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 치욕적인 말을 한 재가자도 있었다고 스님은 술회했다.

그나마 2013년 자신의 책을 읽고 찾아온 30대 중반의 거사와 인연이 돼 세존학술총서 발간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스님에게는 선근 인연으로 다가왔다. 그 불자는 약 1억 원의 보시를 통해 학술총서 발간 불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현재 스님이 기획하고 있는 총서 시리즈는 10권이다. 현재 10권에 대해서는 전부 선정을 완료했고, 대부분 역자들도 배정이 완료됐다. 본래 목표는 20~30권을 계획했다. 이는 현재의 가시적 성과가 아닌 미래불교를 위한 투자다.

"현재 승가와 재가가 갑자기 경천동지하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나마 제대로 된 학술연구서들이 있으면 미래에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불교의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해 총서를 내는 겁니다. 다만 재정적 문제로 계획했던 최소 20권을 발간할 수 없다는 게 아쉽기만 합니다. 조금 더 시주가 들어온다면 좋겠지만…. 외형적 불사만큼 법보시에도 출 · 재가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스님은 지난해 발간했던 저서 〈그래도 불교〉에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며 30년간 소장한 통일신라 금동불을 내놓고 싶다고 했다.

앞으로의 번역불사 진행비도 필요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죽는 모습은 상상하기도 싫기 때문이다. 그간의 거절과 모멸로 스님은 권선보다는 불상을 내놓는 결정을 내렸다. 기자에게 불상을 보여준 스님은 "희유한 인연을 기다린다"고도 했다.

자신의 분신을 내놓더라도 완성하고 싶은 세존학술총서와 사이트 운영은 성법 스님에게 어떤 의미와 목표가 있는 것일까. 인터뷰 말미 질문을 던졌다. "내가 출가 사문이라서. 그래서 해야 할 일"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누구도 가지 않는 길. 그래서 외로운 그 길을 스님은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



미얀마

출발 확정 5/14, 5/23일



중국 4대 불산 오대산 아미산 보타산 구화산

오대산 5일
아미산 5일
구화산 5일
보타, 낙가산 5일



인도 8대 성지순례 11일

사르나트-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
쿠시나가르-룸비니-쉬라바스티-상카시아

긴급모객 5/18 출발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특급호텔 185만원)

문의 전화 02-365-7747
www. mahayeon.com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 933호

20년 경험 성지순례자의 도반
YESGOOD.CO.LTD 마하연 여행사